



아프리카 정말 천국(天國)이다



허 남

현대원자력(주) 회장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얼마 전 나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세계동위원소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평소에 남아공은 가고 싶었던 곳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비엔나에서 과학관 생활을 하던 시절 북한의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활동과 함께 남아공의 핵물질관리는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졌었기 때문이다.

그후 남아공은 핵무기개발을 완성하고도 핵무기비확산 조약에 충실하느라 핵무기를 완전히 해체해서 핵 개발 분야에 그 투명성을 세계인에게 보인 모범적인 국가인데다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있었던 터라 애써 세계동위원소대회에 참가했던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남아공은 누구의 땅인가?

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흑인은 애초부터 자기들이 살던 땅이라 주장하고 백인은 자기들이 개척한 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느 쪽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그런데 백인이 인권을 말살하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을 통해 흑인의 땅과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나라를 확대해 온 것은 분명하다.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요 그 부(富)는 대부분 백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 나라는 석유를 제외한 거의 모든 광물자원이 채굴되는데 그 중에서도 금, 백금, 크롬, 다이아몬드, 우라늄, 티탄 등의 매장량은 세계적으로 손꼽힐뿐더러 외화의 절반 이상을 이들 광물자원으로 벌어들이고 있다.

그러나 백인은 교육의 기회도 많은데 비해 흑인은 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천한 일들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다 만델라가 집권하면서 자유는 얻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은 것으로 느꼈다.

케이프타운에 머물 때 씨포인트, 테이블마운 등 여기저기 아름다운 곳도 가 보았다. 그 중에서도 중학교시절 지리시간에 배운 희망봉(Cape of Good Hope)을 올라가 본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이곳은 인도양과 대서양의 2개의 해류가 만나 소용돌이 치는데 그날은 바람도 몹시 불어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남아공 갈 때는 서울서 출발하여 싱가포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요하네스버그를 경유하여 케이프타운까지 약 20여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먼 곳까지 왔는데 남아공 케이프타운만을 보고 아프리카를 보고 왔다고 말하기엔 너무 아쉬워 추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케냐 나이로비로 가서 Wild Life를 보고 싶었다.

그래서 갔던 비행코스를 마다하고 케이프타운을 떠나 요하네스버그를 거쳐 케냐로 가기로 했다.

케냐의 나이로비를 가자면 잠시 요하네스버그를 거쳐야 하는데 카드로 지불한 금액이 이용한도 초과라는 뜻하지 않은 일로 비행기 티켓이 되지 않아 바로 나이로비로 갈 수가 없었다. 팔자에 없게 부득이 요하네스버그에서 1박을 하게 되었다. 투어가이드의 이야기로는 요하네스버그는 치안이 불안한 상태여서 혼자 다니기 위험하다는 권유를 하기에 이를 받아들여 선시티(Sun City)라는 곳을 찾았다.

선시티는 인공적으로 만든 도시인데 아름다웠고 그곳은 리도쇼(Rido Show)가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미국 라스베가스나 프랑스 파리에서 보는 그런 리도쇼가 아니고 흑인 고유의 현란한 춤이야말로 환상적이어서 쇼를 관람한 사람들의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또한 선시티 근처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퍼인 게리플레이어의 이름을 딴 골프장이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다. 선씨티를 왕복하면서 길거리에서 파는 망고 등 여러 가지 맛있는 과일들을 사서 먹기도 하였다.

우선 케냐를 가자면 갖춰야 할 몇 가지가 있다. 한가지는 말라리아 예방주사이고 또 하나는 비자 획득이다. 갑자기 가기로 한 결정이어서 비자는 받지 않았지만 말라리아 예방약은

가기 전 약 열흘 전부터 먹었다. 다만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10 정도의 비용을 주고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의사를 찾아 주사를 맞고 증명서도 만들었다. 그 주사의 유효기간은 10년이라고 하니 앞으로 그곳을 다시 찾는다면 예방주사 증명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성싶다. 케냐의 입국비자는 입국때 공항에서 \$50을 내니 금방 비자를 얻을 수가 있었다.

이번 여행에서 나는 한가지 유쾌하지 못한 추억을 남겼다. 나이로비에서 1박을 할 때 아침에 전기면도기를 찾으니 그것만 없어진 것이다. 승객도 많지 않았는데 나이로비에서 유난히 짐이 늦게 나오는 것이 이상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요하네스버그에서 부친 내 가방을 나이로비에서 짐을 옮기면서 누군가 빼낸 것이었다. 그러나 가방을 몽땅 가져가지 않고 일부만 뒀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나서 다른 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멀쩡한 가방을 랩으로 여러겹 포장을 해서 짐을 부치는 것이었다. 도둑들이 많아 잊어버리는 물품이 많다는 것이다. 공항에는 우리 공항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박스포장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것처럼 짐을 랩으로 싸주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있었다. 훔쳐가는 놈보다 잃어버리는 놈이 더 나쁘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은가. 요하네스버그에서 도둑 맞았는지 나이로비에서 도둑 맞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잃어버린 물품에 대해 케냐 공항 직원에게 항의를 해 보았지만 그런 일이 많아 서인지 심각한 반응이 아니었다. 하여간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

케냐에는 사파리가 여러 곳이 있다. 그 중에서도 마사이 전사들이 전통적으로 살고 있는 마사이마라라는 곳을 갔었는데 그곳은 나이로



비에서 프로펠러비행기(10~20인)를 타고 약 50분 정도 걸려서 가는 곳이다.

비행장이라야 허허벌판에 포장도 하지 않은 맨땅에 내리고 뜨는 것이어서 꽤 불안했는데 그런 대로 안전하게 뜨고 내린 편이다. 경비행기를 타고 끝없이 펼쳐진 평야를 내려다 본 것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다.

비행장에서 머무는 숙소까지는 걸어서 약 10분 정도 가는 곳인데 호텔이라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10여개의 고급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자는 것이었는데 그야말로 야생미가 넘치는 그런 장소인 것이다.

텐트에는 간이 샤워시설이 있고 모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망을 쳐놔서 편안했고 그런 곳에서 한번쯤 머문 것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다.

게다가 캠프파이어 무드속에 밤이 늦도록 맥주를 들면서 기타와 애조 편 노래를 듣는 것도 멋진 추억이 아닐 수 없었다. 기타리스트(Hchore)는 Welcome to Africa, Eeh Africa, Let me remember, Take me to Africa 등의 곡을 연주했는데 그 메아리가 지금도 귓가에 메아리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멋진 추억거리를 가지고 돌아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곳에 머물면서 커다란 짐차를 타고 비포장 길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광야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야생동물을 찾아다녔는데 기린, 코끼리, 사자, 하이에나, 자칼, 얼룩말, 가젤, 임팔라, 원숭이, 누, 표범 등을 보았다. 호랑이만 빼고는 무리 저서 다니는 희귀동물을 비롯하여 많은 새들을 본 것은 또한 귀한 체험이 아닐 수 없었다.

그곳에는 세계 여러 곳에서 온 관광객들과 함께 동물들을 찾아다녔는데 그러다 보니

표범이 갓 잡은 동물을 먹는 것까지 보았다는 외국인 투숙객의 말을 옆에서 들었다. 마치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것 같은 생동감을 느꼈다. 그러나 짐차들이 여러 대 한군데 모여 사진을 찍느라 야단법석이어서 배기가스로 벌써 케냐의 평야는 오염돼 가고 있구나 생각하니 시간문제지, 언젠가는 환경문제를 가지고 걱정할 때가 있을꺼라는 예견이 들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거기가 천국이라고 느꼈다.

얼굴이 까맣기는 하지만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순진하였고 내가 그들이 더럽다고 느꼈던 그들의 삶의 현상이 그들 스스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평화스럽게 느끼면서 살고 있었다. 며칠 머무는 동안 뜨거운 피약벌에 내 얼굴이 노출되어 검게 그을렸는데, 아마 몇 년 그곳에서 산다면 검둥이가 되지 않을까 상상을 해 보았다. 그래도 나무그늘에 있으면 습하지 않은 날씨 때문에 쾌적한 느낌이었다.

언젠가 우리 텔레비전에서도 방영되어 시청한 일도 있어 마사이 전사들이 사는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실제 생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밤에는 소와 양들을 마을 한가운데 몰아놓고 있다가 낮에는 여기저기 풀 있는 곳을 찾아 목동이 이들 동물떼들을 몰고 다닌다.

소와 양들이 있는 주변은 토담이나 두더지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었고 그 집은 여자들의 뒹으로 지붕이나 벽 그리고 바닥은 짐승의 가죽을 깔고 살고 있었다. 벽과 지붕은 가죽의 배설물과 흙을 발라서 굳히는 것이었다.

마사이 전사들이 살고 있는 집을 볼려면 약 \$20 정도를 지불해야 된다. 돈을 받고 그들이 살고 있는 내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쓸쓸했지만 나중에 그들의 설명을 듣고 보니 좀 이해가 되었다.



해외탐방

세계각국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신기하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를 방영하다 보니 자기들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의문의 답으로 1인당 \$20 정도의 비용(?/교육 지원비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임)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학교도 짓고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나를 손님으로 맞아 남, 여 따로 10여 명씩 무리를 지어서 남자는 경충경충 뛰면서 노래를 불렀고 여자는 노래만 불렀는데 무슨 노래냐고 물으니 손님을 환영하는 인사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곳 저곳의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을 구경시켰는데 냄새는 그리 나쁘지 않았으나 불결한 느낌이어서 오래 머물 수가 없어 금방 나왔다. 가축(소나 양)의 수를 많이 가진 마사이족 남자들은 여자를 여러명 거닐 수가 있는데 신기한 것은 부인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낸다는 것이다. 즉 경제력이 남자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 혹시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마을 단위로 오랜 경험을 가진 노인이 있어 아플 때 적절한 처방으로 병을 치유해 준다는 것이었다. 신발도 신지 않고 가축의 배설물을 밟고 다니는데 신기하게도 모기가 그들 몸에 접근을 하지 않으니까 말라리아에 걸리지도 않는다고 한다. 우리 인간은 나름대로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모양이다. 에이즈같은 질병은

없느냐고 묻는 질문에 단호하게 없다고 대답한다. 마사이족 남, 여 모두가 건강해 보였고 7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도 만났다. 그러나 아마도 평균 수명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았다.

그곳 방문을 마치고 질문 있으면 해보라기에 치아를 닦느냐고 물었다. 우리가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나무젓가락 같은 것으로 이와 잇몸을 문지르는데 그들의 치아가 까만 얼굴에다 흰치아로 대비되어 펍 깨끗해 보였고 입을 열어 보라고까지 해서 입속을 들여다 보니 썩은 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 펍 신기했다. 그리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

나중에 치과의사에게 그러한 체험담을 말하니까 그 나무는 자이리틀 성분을 가진 나무라는 것이었다. 하여간 우리들의 가치관으로 사물을 보는 것은 아마 편견이 될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같이 보였다.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곳이 아프리카의 케냐이다.

요즈음은 그곳 호텔에서 만난 20세의 크리스틴이라는 딸과 같은 귀여운 여자하고 이때 일로 교신을 하는데 그는 벌써 다섯 살짜리 딸을 둔 어머니였다. 일찍도 남자를 만난 것 같다. 나는 언젠가 케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결성하여 크리스틴을 돕고 싶다. **KRIA**